



보시니 좋더라

전례 주기를 따라가는 놀이와 활동 프로그램(9)

김종대 · 가톨릭가톨릭 한마음 놀이 문화 연구원(부산)

군인 아저씨, 고맙습니다(군인주일)

본당 신자 중에 혹은 주일학교 교사 중에 현재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편지를 보내 보면 어떨까? 아마 반가움과 새로운 감동, 신앙을 더 굳게 하는 작은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.

-대상 : 초등부 고학년 이상

-준비물 : 편지와 봉투, 필기구와 목주 그림, 크레파스나 색연필

-진행 내용

- ① 우선 교사는 본당에서 군대에 간 청년 신자를 조사한다.
- ② 명단이 준비되면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선택한다.
- ③ 편지 봉투에는 본당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편지 한 장을 더 넣는데, 이것은 그 청년의 가장 친한 전우를 위한 것이다.
- ④ 간접 선교와 기도로 본당 공동체(교회 공동체)와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한다.

고리 목주기도(목주기도 성월)

우리는 나뭇대로의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다. 몇 가지 지향을 두고 가족 공동체가 혹은 교리반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.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.

-대상 : 초등부 고학년 이상 가능

-대형 : 교리반이나 가정에서 공동체로 실시

-준비물 : 목주, 지향 뽑기 종이(색종이나 젓가락 등), 하트 스티커와 고리기도 목주판

-진행내용

- ① 학생들에게 기도를 드리고 싶은 지향을 적어 내도록 한다. (이때 교사는 다양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지향을 준비한다.)

(예)

[교회를 위한 지향]

성 교회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/ 교황님과 주교님을 위하여 / 성직자를 위하여 / 수도자를 위하여 / 교회 봉사자들을 위하여 / 신학생을 위하여 /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/ 북한 교회를 위하여 / 내담자와 예비자들을 위하여 / 교회공동체의 친교를 위하여

[세상을 위한 지향]

세계 평화를 위하여 / 우리나라를 위하여 / 우리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/ 정치인들을 위하여 / 교육자들을 위하여 / 군인들을 위하여 / 노동자들을 위하여 / 자연보호를 위하여 / 과학자들을 위하여

[나눔을 위한 지향]

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/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/ 북한 형제, 자매들을 위하여 / 소외된 이와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/ 실업자와 노숙자들을 위하여 / 소년소녀 가정들을 위하여 / 장애인들을 위하여 /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/ 하느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를 위하여

[가정을 위한 지향]

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/ 모든 부모들을 위하여 / 자녀들을 위하여 / 형제자매들의 우애를 위하여 / 어르신들을 위하여 / 임종하는 이들을 위하여 / 태아와 산모들을 위하여 /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하여

[신앙생활을 위한 지향]

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/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/ 사랑과 봉사의 삶

을 살아가도록 /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/ 나눔을 실천하는 자세를 구하며 / 용서하고 용서를 청하는 자세를 구하며 / 겸손의 덕을 구하며 / 친절의 덕을 구하며 / 굳센 믿음의 은혜를 구하며

- ② 이 지향을 각자가 준비한 색종이나 젓가락 등에 적는다.
- ③ 준비한 지향 색종이와 젓가락을 풍선(색종이에 적었을 경우)이나 통 속에(젓가락에 적었을 경우) 넣어 뽑는다. 풍선을 이용할 경우 다트 판을 이용하여 선택하도록 한다.
- ④ 기도 판을 만들어 교리실에 게시한다. 기도 판에는 이름, 지향, 연락처를 각각 적어 둔다.
- ⑤ 이를 주간 중 실천하면 고리 순서대로 다음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실천한 내용을 전달하고 고리를 이어가게 한다.

우리가 만드는 그림 목주기도 판(목주기도 성월)

우리 친구들이 정한 목주기도 지향을 가지고 목주 한 단을 만들어 보자.

-대상 : 초등부 고학년 이상

-준비물 : 1단 목주 그림, 크레파스나 색연필

-진행내용

- ① 우리 친구들이 각자 목주기도 판을 한 단씩 만들도록 한다. (교사가 만들어서 나눠 줘도 된다.)
- ② 목주알 하나하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, 그 일을 해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쓰거나 그린다. (이때 종이접기로 예쁜 새나 꽃을 만들어도 좋다.)
- ③ 목주알 하나하나에 내용을 채운 뒤 모듬원끼리 손을 잡고 목주기도 한 단을 바친다.
- ④ 기도가 끝나면 각각 목주알에 쓴 일을 선언한다. “나는 ~ 할 수 있어 복됩니다.”

야광 목주기도(목주기도 성월)

목주기도 성월 행사로 해 볼만 하다. 기도할 때는 보통 초를 많이 이용하는데, 초가 아닌 색다른 재료를 사용해 새롭고 특별한 기도 시간을 마련해 주자.

-대상 : 초등부 고학년 이상 가능

-대형 : 성당 마당의 성모상 앞에서

-준비물 : 야광팔찌나 스파클라(꽃다발을 이용해도 좋음.)불꽃

-진행 내용

- ①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모상 앞에 모여 묵주알(59알) 모양으로 자리를 잡는다. 교사가 미리 학생들이 설 자리를 표시해 둔다.
- ② 야광팔찌나 스파클라(꽃다발)를 나눠 주고 4가지(환희, 빛, 고통, 영광) 신비 중 하나를 기도한다. 묵주 한 알 한 알 넘어갈 때마다 야광팔찌를 흔들거나 스파클라에 불을 붙여 보자.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.
- ③ 전례 중 성모님의 발현과 관련된 영화를 야외영화제 형태로 구성하는 것도 좋다.

성모님 노래 제목 맞추고 부르기(묵주기도 성월)

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찬미의 노래와 같다.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은 많은 성가를 듣고 또 불러 보면서 묵주기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음미해 보자.

-대상 : 초등부 고학년 이상 가능

-대형 : 교리실이나 강당

-준비물 : 성모님 관련 노래 제목을 쓴 종이, 성모님 노래(음반과 재생장비)

-진행 내용

- ① 성모님과 관련된 노래(CD나 테이프)를 모아 노래 제목을 종이(A4 1/2크기로 사각이나 원형)에 쓰고 코팅한다.
- ② 코팅한 종이를 강당이나 교리실 바닥에 깔아 두고 노래를 들려 준다.
- ③ 각 학년별이나 팀별 대표가 나와 제목을 찾으려 하면 그 팀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. (점수를 주어 유도해도 좋다.)
- ④ 맞춘 노래 제목의 종이는 1단 묵주 그림에 붙여 나가도록 해 먼저 1단 묵주를 완성하는 팀이 이긴다.

신비의 카드(묵주기도 성월)

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묵주의 기도는 4가지 신비(별첨 자료 참조)로 되어 있다. 이 내용을 그림이나 카드로 만들어 묵상하면서 각 신비를 외워 보자.

-대상 : 초등부 고학년 이상 가능(그림인 경우 저학년까지)

-대형 : 교리실이나 강당, 개인별 카드 게임으로나 팀별 진행

-준비물 : 신비 4가지의 그림 카드나 내용 카드(총 20장)-팀의 수에 따라 양이 달라진다(2~3팀인 경우는 3배수 준비, 4팀 이상인 경우 6배수 준비)

-진행 내용

- ① 각 신비의 내용을 카드로 만든다.(그림 또는 글씨) 크기는 A4 1/2크기로 사각딱지 모양이 되게 한다.
- ② 각 팀(개인)에게 카드를 섞어서 10장씩 나누어 준다. 나머지는 중앙에 덮어서 모아 둔다.
- ③ 각 팀(개인)은 신비 하나를 선택하여 필요 없는 카드를 내고 바닥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가져간다. 순서대로 진행하여 먼저 신비 5단을 맞추어 내면 이긴다. 그리고 각 신비에 대한 설명을 유도하여 교리적인 접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

그림 · 백지혜 실비아